



| 성체의 논의 (라파엘로, 회벽에 프레스코, 1510년 경, 바티칸 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명작 중 하나인 이 그림은 천상과 지상을 잇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표현하고 있다. 천상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가 세로로 배열되어 있고 예수님의 좌우에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을 비롯하여 구약과 신약의 주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지상에서는 제단에 모셔진 성체를 중심으로 성 아우구스티노, 성 토마스, 성 보나벤투라 등의 교부들과 단테 알리기에리를 비롯한 당대의 예술가들이 성변화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오늘의 전례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 6,24-35 참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빵으로 변모합니다. 성모님께서 아홉 달 동안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듯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살아있는 감실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모시고 가야 합니다.

제1독서 탈출 16,2-4,12-15

제2독서 에페 4,17,20-24

복음 요한 6,24-35

화답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8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미사 때는 휴대폰을 끄시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



노건우 루카 신부 | 신녕성당 주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 ① 이 날이 결혼식인 사람
- ②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 ③ 현역 군인
- ④ 8년 차 고시생 ⑤ 국회의원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음의 순서로 대답했다 하지요(2005년 6월 12일자 평화신문). 이는 가톨릭 입교 동기와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가톨릭신문 2007년 3월 30일).

왜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까?

- 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67.9%)
- ② 복을 받기 위해서(15.6%)
- ③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서(7.8%)
- ④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7%)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온 군중들에

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굳이 이 좋은 날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를 찾아 성당에 오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기 위해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그분을 애타게 찾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배부르고, 병 낫고, 사업 번창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기 위해.....? 결국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그것이 곧 썩어 없어질 양식인데도 오직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진정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빵만을 찾아 남은 인생 이리저리 헤매며 낭비하지 마시고, 생명을 위해 예수를 찾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태오 16,26) 26주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사랑하십시오!”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 교구 청소년담당

위 클래스(Wee class)라고 들어보셨나요?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뿐만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치료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 위 클래스에 얹힌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는 그 학생의 어머니를 호출하였고,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학교 정문을 들어서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런 일로 내랑 학교 들어가는 게 안 부끄럽나?”

“뭐, 괜찮다. 위 클래스 때문에 너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너만 괜찮다면 엄마는 괜찮다.”

어머니는 나중에 위 클래스 상담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날의 그 짧은 대화가 자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 깨닫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상담교사에게조차도 마음의 문을 쏙 닫고 있던 그 아이가, 엄마가 다녀가

고 나서부터는 변했다고 합니다. 대화에 적극 나서고 변화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직관적으로 그 짧은 대화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내 딸은 그 대화를 통해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구나.’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청소년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보스코 성인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amorevoleza(느끼고 반응하는 사랑)’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도록 사랑하십시오.”

독립한 자녀들이 부모를 서로 모시겠다고 야단이라면 부모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쁨에 충만할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자녀들만이 순수한 애정으로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제구주

■ 금주의 성인 성 라우렌시오



성 라우렌시오 (8월 10일)

로마의 일곱 부제들 중 한 분이었던 라우렌시오 성인께서는 로마의 집정관이 교회의 재산을 헌납하라고 명하자 3일 간의 말미를 청하였다. 그 3일 동안 성인께서는 교회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3일 후 맨 손으로 출두한 성인께서는 재산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는 집정관에게 “병자들과 불구자들, 과부와 고아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재산이요.”라고 대답하셨다. 분노한 집정관은 성인을 석실에 구워 죽였다. 성인의 의롭고 용맹한 죽음을 본 많은 로마 시민들이 크게 감동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_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

제1독서에서 사막에서 방랑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치고 굶주려 모세와 하느님에게도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하느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라며 만나를 설명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가르쳐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빵을 많게 하여 그들의 배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깊은 의미의 배고픔을 채워줄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빵을 달라고 청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과 교리

_ 성찬 거행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빵을 나누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미사의 구조는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말씀전례와 성찬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말씀전례는 먼저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합니다. 말씀의 선포와 응답 뒤에는 강론이 이어집니다.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움을 줍니다. 강론 후에는

교회와 세상, 본당과 지역에 필요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후반부의 성찬전례는 회중이 제단에 빵과 포도주를 바침으로써 시작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제물이 준비되면 감사의 기도와 성찬기도를 바칩니다. 그런 다음 회중은 영성체를 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다음 주례 사제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수행하라고 신자들을 파견합니다.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을 나눕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더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과 성사

_ 성체성사는 사랑의 성사

예수님께서 실제로 참으로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축성된 빵과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체와 성혈이라 부릅니다. 성체와 성혈은 완전한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성체와 성혈을 받아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일, 즉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할 힘을 받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하느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정당한 불평, 원망인지 묵상해 봅시다.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라는 미사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반짝이는 꿈지기 상현이의 이야기

상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서근혜

검게 그을린 피부에 반짝이는 눈망울, 개구쟁이 같은 웃음을 머금고 있는 상현이(가명, 14세)는 밝고 쾌활하지만 어릴 적 상처가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상현이는 생후 2개월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여태 편찮으신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외국에 계신다던 부모님이 실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것은 상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합병증

에 척추수술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상현이 외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가 유일한 수입이라 상현이에게 간식 한번 챙겨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상현이는 선물 받은 축구공을 잘 때도 껴안고 잡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돈이 없어도 마음껏 놀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에는 안타까움에 마음이 갑갑해 집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상현이 가족을 위해 경제적 후원을 하실 분을 찾아 주거비와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행하고 또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 외롭게 자라 온 상현이가 멘토링 봉사자 결연을 통해 좋은 누나를 만나게 된 것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아동센터의 어린이들

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 누나와 만나고부터 상현이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업성적도 향상되었습니다. 막 중학교에 입학한 상현이는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급장으로 뽑히기까지 했습니다. 편찮으신 외할머니가 졸업식에도 입학식에도 오지 못하셨지만 변함없이 씩씩하고 밝은 상현이. 상현이는 어른이 되면 외할머니에게 꼭 좋은 집도 사드리고 효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상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길, 상현이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링크

■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 런던 올림픽 축하 발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지난 7월 22일(일) 교황 별장인 카스톨 간돌포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삼종기도를 바치시고 “올림픽은 어떤 나라의 선수나 참여하기에 강한 상징적 가치를 갖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스포츠 행사”라고 하시며 “런던 올림픽이 세계평화와 친목을 증진하길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제공 : 바티칸 웹사이트(<http://www.news.va>)

■ 포항 ‘카페 카리타스’ 4호점 오픈



교구 사회복지회가 주관하고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카페 카리타스’ 포항시 남구청점(4호점)이 7월 20일(금) 오픈했다. 이날 개점식은 전재천 암브로시오 4대리구 주교대리 신부님과 박승호 포항시장, 장애인단체장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남구청 1층에서 열렸다.

기사 및 사진제공 :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동영상 제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예비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이들에게 한국 천주교회를 소개하는 ‘한국 천주교회’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10분 분량으로 제작 되었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www.cbck.or.kr>) 및 교구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그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만 아신다(마르13,32)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베네딕도의 벗들 캠프

기간: 8.10(금)~12(일)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수도생활체험학교

역대 참가자 남녀

문의: (010)8353-2323 / (054)970-2000

살레시오회 남자 중고생 성소 캠프

기간: 8.13(월)~15(수)

장소: 대전 살레시오 캠프장

참가비: 3만 원

연락처: (010)3894-1332

삼성산성지(서울교구) 2박3일 기쁨대피정

기간: 8.10(금) 18:00~12(일) 15:00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신부 외

문의: 삼성산성령기도회, (010)2389-3332

여름피정 - 인카운터

기간: 8.10(금)~12(일) 경남산청성심원

주최: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회비: 3만 8천 원

문의: 이 리더아, (010)2570-0939

성모님 함께하는 6일 - 침묵치유피정

1차: 8.6(월)~12(일), 안양아론의집

2차: 8.12(일)~17(금), 부산마리아피정센터

강사: 안토니오 신부(인도 요셉빌신부 후임)

회비: 39만원 (신한, 110-235-039961)

주최: 부산교구 마리아피정센터

문의: (010)9040-2507 / (010)3553-3243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다사성당)

일시: 8.1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은총의 성모승천과 죄의 용서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루르드 샘물 증정)

특강: 문봉한 (아고보) 신부

9.8(토), 10.13(토), 11.10(토)

예수성심수녀회 성소 피정

기간: 8.25(토)~26(일)

9.15(토)~16(일)

주제: 성소식별 체험기도

대상: 건강한 미혼 남녀

회비: 1인 3만 원

문의: (010)2649-2045

성 빈센트 젊은이 빈마음 피정

기간: 8.24(금)~26(일), 흥천기도의집

대상: 미혼여성 (만 30세 이하)

준비물: 성경, 묵주, 회비: 3만 원

주최: 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문의: (010)8833-8107(선착순 접수)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8.17(금) 17:30~19(일)

4박 5일: 8.20(월) 14:00~24(금)

8박 9일: 9.17(월) 14:00~25(화)

황혼의 삶: 8.25(토) 15:00~26(일)

문의: 성심수녀회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제주 성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기간: 9.1~4(토~화), 9~12(일~수)

9.16~19(일~수) 10.6~9(토~화)

장소: 제주 성이시돌 목장 내

문의: 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미사안내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8월 6일(월) 오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6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8월 6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8월 6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8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교육관

항점신앙유적지 쉼터

자연을 접하고 휴식과 영적충전을 얻을 수 있는 교구운영 쉼터!!

원룸형	4인 수용	1일 40,000원
투룸거실형	8인 수용	1일 80,000원
세자요한의 집	8인 수용	1일 100,000원
로엘의 집	16인 수용	1일 200,000원

예약은 무학연수원 카페로~
http://cafe.daum.net/jeonhwasoo

문의 010-9889-3099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 성가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

힐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규욱(박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아월 이마트내 2층·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총족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대표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 053)639-8998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고 입구

행사 | 모임

노동자 미사

일시: 8.17(금) 19: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강당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1

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8.8(수) 13:00
장소: 운전기사사도회 사무실
문의: 강청남, (016)520-8330

교육 | 모임

시편성가연수(김정선수녀) 발성법(박재연)

일시: 8.5(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제597차 성령세미나 (2박 3일)

기간: 8.10(금) 9:30~12(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고령 월막피정의집)

비용: 12만 원, 대상: 일반신자
선착순: 60명
문의: (054)954-0951 / (010)4419-1220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 · 어학연수

기간: 2차 8.26(일) 출발(8주, 12주)
3차 9.23(일) 출발(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한티성지 주회 중국성지순례

기간: 8.29(수)~9.1(토)
출발/도착: 대구 국제공항
회비: 85만 원
관장 김종현 신부 동행
문의: 성지여행사, 253-3399
(010)6503-0906

대안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오르간 전공 반주자 모집 (유급)
문의: (010)2798-0911

식사·목욕 자원봉사자 모집

장소: 대구작은예수교회
문의: 예수임마누엘 수녀
652-6740 / (010)4262-7970

개인, 레지오 단체 가능

가톨릭 청각음성언어센터 개원

활동: 보청기제작 및 청각
음성, 언어치료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요한관 417호
문의: 850-2547, 3383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우쿨렐레, 대금, POP예쁜광고글씨
문의: 476-6211

여대생의 뜰 (기숙사)

대상: 여대생, 대학원생 (종교무관, 숙식)
장소: 서울 성북구 정릉 국민대 건너편

문의: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02)911-7580
<http://www.rcm1892.net>

까리따스 젊음의 집 개소

내용: 소그룹 피정 (20명 미만)
대상: 각 본당의 청년 및 신심단체
문의: 예수이까리따스수녀회
(010)2637-5237
<http://cafe.daum.net/vocatio>

채용

성가요양원 야간근무 여직원 채용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서류 등

제출: pius8021@nate.com

또는 방문

문의: 안심원, (054)976-8122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2012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16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52, 3074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PLUS},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서 상 윤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구교재단
대레사소비선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에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 야채 · 선어 · 정육
신선 · 가공식품 · 공산품 · 생필품
생활 · 패션잡화 · 수입주방 ·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희(그리스도)신부

**전문
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
(수리, 언어, 과)

고등부 · 고3수능 · 재수생 · 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256-6300

월치과병원

ddm 카페 **닥초의 치과이야기**

Tel.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동편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명품만드는 **SM** **수맥흙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 1588-5335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